

전남도,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소의 이웃 없게 민·관 협력체계 강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위기정보 확인
복지기동대 활용 위기가구 사전 대비
생계비·의료비·동절기 연료비 제공

전남도가 올 겨울 이상기후 한파에 대비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올해 겨울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휴업,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엔 긴급복지서비스로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 예방 점검으로 따

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5천200박스를 나누고, 1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원을 모금해 나눔문화 확산에 집중키로 했다.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에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겨울철 난방비와 연 62만원의 양곡비를 지급하고, 남은 운영비는 부식비로 사용토록 해 경로당 공동체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어르신 지킴이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겨울철 어르신의 안부를 주 2-3회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신

속히 대처할 예정이며, 저소득 어르신의 영양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176개소의 경로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재가 장애인 7천여명의 안부 확인과 안전점검 등 한파 대비 모니터링과 겨울철 안전한 가사·이동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 13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폭설·동파 대비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 교육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비해 2개월 빨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개소와 시·군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12월부터 2월까지 한냉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해 피해가 많은 고령층 대상 맞춤형 예방활동과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상기후로 극심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외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바라는 대상지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복지위기알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겨울철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市, 내달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강화

광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오는 19일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모의훈련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광주시와 관계기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당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에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가정해 현장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현장(실제) 훈련은 제1하수처리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 공사장인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8공구 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등 특별점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사전 홍보, 과태료 미부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도로 청소 강화 등 실제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면 훈련으로는 재난 문자 발송(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 제한(안내 문자·방송, 홍보, 출입제한 없이 자율참여)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대상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신속히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조치 이행체계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하면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고3 수험생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전남도, 내달 말까지 1만5천여명 대상

전남도는 17일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56%가 청년층으로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 진학이나 독립을 준비하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145개 고등학교 약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전

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사기 예방 영상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 ▲보증보험 가입 안내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에만 1천355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순천)에서 매주 월요일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관련 상담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2025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려 수상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선정

기후에너지부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기업탄소액션·폭염정보서비스 등 호평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17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

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법기상청과 협업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자비나눔의 원력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22회 쌀 나눔 및
제16회 지장행자 사경 및 봉사상
연꽃상 시상식

2025년 12월 5일(금) 오후2시 | 소원정사부처님전에서

불자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1,500분의 어렵고 힘든 부처님들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쌀 한 포대가 어려운 부처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 10월 13일 ~ 11월 30일까지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명도게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문의 및 접수 : 062-366-3332